

UBIQUITOUS AGE

### 나날이 증대되는 표준화 활동의 중요성

우리는 매일 휴대전화나 PC, PDA와 같은 하드웨어 및 브라우저, 메일 클라이언트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수많은 국제 표준 규격들을 접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들로는 웹에서 쓰이는 마크업 언어인 HTML과 스크립트 언어인 ECMA Script, 휴대전화에 탑재된 WAP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WML 1.x/2, XHTMLMP, 그 외에 MMS에서 사용되는 SMIL 등이 다.

이와 같은 표준은 월드 와이드 웹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World Wide Web Consortium(W3C), 상호 연동성 (interoperability)이 증시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서비스를 위한 service enabler를 제정하는 Open Mobile Alliance(OMA), 그리고 3세대 모바일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적 규격 및 보고서를 제작하여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와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STANDARDIZATION



강 관 희  
(주)인프라웨어 대표이사

공개하고 있는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3GPP) 등의 표준화 기구에 의해 제정되고 있으며 각 기구 내의 수많은 멤버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합되는 규격을 국제적인 표준으로 만들어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함이며, 이런 표준화 활동은 제품개발 경쟁 못지 않게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 다가온 유비쿼터스 / 컨버전스 시대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컨버전스(Convergence)가 21세기 정보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두 개념 모두가 표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보 획득 및 공유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인터넷 디바이스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서버, PC, 휴대전화, PDA 등으로 다소 제한적인 지금의 인터넷 기기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동 규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 제품보다 고도화되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셋톱박스, 디지털 TV, 웹폰, 인터넷 오디오, 정보가전들도 앞으로 제정될 국제표준에 의존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는 소형화, 다양화, 개인화, 고도화 등이 그 특징이 될 미래형 기기의 중심에 표준이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결국 활발한 표준화 활동 및 그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기업의 기술적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우리나라에는 특정 분야에서 대기업보다 기술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수의 저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런 기업들은 작은 조직이 가지는 장점인 신속성과 유연함을 무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시장 주기가 빠르게 변화하고 국내 및 해외 경쟁사들보다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짧은 시간 내에 도태되어 버리는 무선 인터넷 솔루션 업계에는 W3C나 OMA 등에 등록된 수많은 표준을 이해하고 이를 자사 제품에 적용하면서 기존 규격이 가진 한계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 규격에 대한 제안 활동의 의지를 가진 업체들도 많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표준화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 비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제안이 표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통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인력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며, 표준화 활동보다는

이익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솔루션 개발이나 제품판매, 기술 지원 등의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신규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벤처 기업의 인력 누수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각 표준화 단체에 참여하기 위한 연회비, 국제 표준화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출장장비 등의 제비용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에 있어서 처음부터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내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미 제정된 표준안을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이라면 큰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TTA 등의 각종 표준화 관련 기관, 충분한 인력과 자금력을 확보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공조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표준화 관련 기관에서 표준화 작업에 대한 환경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협력 중인 대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특정 분야에서 함께 표준화 제안을 진행한다면 중소기업의 부담을 상당 부

분 떨어져며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표준화 활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표준화 활동의 한계 극복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의 선진 기업들은 기술 우위와 자금력, 상품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가고, 이를 토대로 국제 표준을 제정하여 전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국제표준 제정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만들어진 표준을 수용하는 입장이었으며, 이런 한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항상 존재해 왔다. 일단 국내에는 원천기술과 표준화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뿐만 아니라 기업의 표준화에 대한 관심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면 단순히 해외로부터 입수된 표준을 지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다 팔아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순발력을 무기로 신규 시장 및 기술의 척후병 역할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공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준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품의 차별화 포인트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표준을 주도해 가는 기업에 비해 한계를 가진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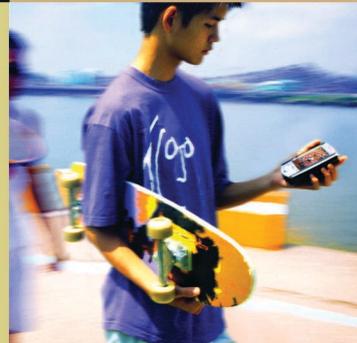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의 표준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국내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제정이 완료되었거나 제정 중인 관련 국제표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표준화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이점을 고려하여 표준화 활동에 참여한다면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리라 믿는다. 특히 해외 업체보다 기술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만 그 규모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나 유관 단체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가 아닌 한 국가에 대한 인지도, 국제 정세 및 헤게모니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는 국제표준 제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TTA**



UbIqUiToUs AgE



aNy TiMe



AnY wHeRe



aNy DeViCe

